



2009 한국불교자비나눔 대축제가 지난 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1부 사회복지포럼에 이어 열린 자비나눔대법회 모습.

## ‘달라이라마 방한, 한중관계 해’

### 중국불교협 도술인 부회장 발언 관련 종단협, 지난 1일 공식 항의서한 발송

도술인(刀述仁)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과의 환담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중관계에 해로운 것”이라고 한 결례발언과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중국불교협회에 공식 항의의 서한을 지난 1일 발송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사무총장 홍파스님 명의로 중국불교협회장 일성스님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11월26일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도술인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낭

독하는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는 한국불교계에 대한 우려와 달라이라마가 방문할 경우 한중간의 우호 또한 해로운 것이라는 일방적인 경고성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결례되는 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이에 대한 중국불교협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종단협은 “달라이라마의 한국 초청 문제는 한국불교가 생각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내에서 달라이라마 초청과 관련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이 무서 목적

으로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같은 일방적인 일은 현재 한중간의 돈독한 우호교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종단협은 마지막으로 “선린우호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종단협은 한중간의 진정한 화금유대를 선린우호를 위해 계속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 “불교복지 일꾼들 수고했어요”

불교 복지 현장의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가 주최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09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제11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지난 4일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해온 교계 기관과 단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복지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스님, 포교원장 혜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총회회의원 및 중앙총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전제회 보견복지가족부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의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1부 불교사회복지포럼과 2부 자비나눔대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국 900여 개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복지현장의 2009년 주요 활약을 돌아보는 시

### 4일, 제11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거행 1부 복지포럼 이어 자비나눔대법회 봉행 불교복지발전유공자 17명 시상식도 가저

간도 가졌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대 원력을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와 내가 돌이 아님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고통과 함께 해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불교 사회 복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전제회 보견복지가족부장관은 격려사에서 “불교계가 현재 900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며 1995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과 2000만 불자들이 이끌어 줬기 때문”이라며 “한국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끊임없는 지

원과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도 격려사에서 “한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사회치유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임”이라며 “복지 실천자들은 화합과 격려의 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세상을 빛내는 활동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불교복지발전에 헌신해 온 사회 복지인을 발굴·포상하는 불교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이 마련됐다. 올해는 보견복지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4명을 비롯해 총무원장상에 부문별로 총 13명이 선정되는 등 총 17명에게 상이 수여됐다. ▶관련기사 18면

이와 함께 법회에 앞서 정신적 가치와 사회복지를 접목시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고 독자성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포럼을 열어 행사의 전문성을 더했다. ‘불교사회

복지와 마음치유’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명상을 활용해 불교사회복지자들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표자들은 또 “웰빙 시대를 맞아 선과 명상 등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불교사회복지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 수행하고 자신 뿐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강사는 ‘초기불교 입장에서 본 마음치유’라는 발표문을 통해 “남을 돌보는 상담가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는데 명상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서광스님이 ‘사회복지의 선(禪)심리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몸 성장·마음 성장’ 지도자워크숍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승스님)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동안 달성 유가사에서 ‘몸 성장 마음성장 드림 캠프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찰 생태 환경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활방식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몸 성장 마음 성장 드림 캠프’ 시행에 앞서 어린이·청소년지도사들을 대상으로 갖는 시연이자 교육이다.

워크숍은 자아존중, 칭찬놀이프로그램, 너 나 우리 이해하기, 사찰음식, 우리 몸 이야기, 108배 명상, 요가프로그램, 숲 체험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청소년지도사와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30명 선착순 모집해 열리며 오는 15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방문 및 이메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지도자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몸 성장 마음 성장 드림 캠프’ 프로그램을 확정된 뒤 오는 2010년 1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캠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 불교신문 2010 신춘문에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2월16일(수) 마감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 - 각 5편  
 동화 - 원고지 30매 내외, 평론 - 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 금 :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 수 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에담당

유의사항  
 1. 결봉투에 신춘문에 헌상공모작품(응모분야포함)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2. 마감일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4. 작품 맨 첫 장에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5. 이메일로 접수가능합니다. (abc2010@ibulgyo.com)  
 문 의 : (02)730-4488(신춘문에 담당)

**불 교 신 문 사**

###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범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응도·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해제비 명칭 수행복지비로 바뀐 이유는 3면      불교학과 개설한 동명대 강정남 이사장 13면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산 증인

# 佛敎新聞 영인본 한정판

www.ibulgyo.com

## 타블로이드판 全9卷 1Set 전 9권 각권 420면

1960년 1월 1일(창간호) ~ 1980년 11월 30일

지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불교신문(대한불교로 창간)은 20여 년간 홀로 뚜렷이 불교 언론의 외길을 뚫어댈 줄을 걸어왔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했으며, 불교신문은 교단 발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도제양성·역경·포교 등 3대 지표를 이행하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교단 현대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도 앞장서 많은 힘을 쏟았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유일한 교계언론이었기에 20년 치 불교신문에는 교계의 역동적인 사건, 행사, 학술자료, 큰스님들의 사자후, 문화, 예술, 각종 연재물 등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교단 현대화를 위한 현대 한국불교의 피와 땀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보물창고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1960년~1980년 불교자료를 찾으려면 '불교신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는 현대 한국불교가 생생하게 들어있는 불교신문을 영인 제작해 아래와 같이 '한정 판매' 합니다. 영인본 불교신문을 소장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자료를 옆에 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변에 권해도 부끄럽지 않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특별판매 : 600,000원 (1Set)
- 구입문의 : 불교신문사 (02)730-448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394-683 / 농협 053-01-139956 (예금주 불교신문사)